

영국의 HIV 전 국민적인 보건문제

:: 박종윤 본회 교육연수과 대리

복지국가 영국은 에이즈를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여 성병과 관련하여 통합운영하고 있다. 감염내과뿐만 아니라 비뇨기과에서도 에이즈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조기에 감염인을 발견하여 에이즈 확산을 진압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외국인을 망라하여 에이즈치료비 전액은 무료이며 100여개에 달하는 NGO의 다양한 활동들은 선진국의 복지사업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

현재 영국에는 5~6만 명 정도의 HIV감염인이 있고 연간 6,000명의 신규감염인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0.1%에 못 미치는 수치이나 영국은 장기적이고 다각적으로 에이즈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염요인을 보면 동성애가 53%, 이성간 성관계가 32%, 마약사용이 7%, 수직감염이 2%, 혈액 및 혈액제제가 3%, 잠재감염인이 3%이다. 성관계에 의한 감염률이 87%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다.

에이즈관련 치료비는 전액 무료

기본적으로 국가의료서비스(이하 NHS, National Health Service)의 수혜 대상자는 HIV치료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1인당 1만~1만5천 파운드(한화 약2,000~3,000만원)로 한국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영국에서는 개인의 위생, 보건보다는 전체 국민을 위한 공

중보건에 더 큰 관심을 집중하고 그 속에 HIV/AIDS가 한 파트로 자리를 하고 있으며, 성병(이하 STIs,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처럼 감염내과에서만 아니라 비뇨기과(이하 GUM, genitourinary medicine)에서도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질병에 대해 일반 개업의사(이하 GP, general practitioner)를 거쳐 전문의에게 연계되는데, 특별히 성병과 HIV/AIDS는 GP를 거치지 않아도 직접 GUM의사를 찾아가갈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비밀보장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누구든 부담 없이 HIV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잠재된 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공중보건에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밀려드는 아프리카 난민의 에이즈 문제이다. 초기부터 근래까지 신규 감염인의 80%이

상이 백인 동성애자였는데, 최근 이성간의 성관계로 인한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아프리카 난민 중 많은 여성 감염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은 자국에서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교육홍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난민이라 할지라도 난민신청을 했다면 NHS의 수혜대상이 되며 모든 서비스가 무료이다. 인권국가의 진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으나 난민의 폭발적 증가로 국민여론은 부정적이다.

다각적이고 세분화된 NGO들

에이즈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100여개가 있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는 4-5개 정도가 있다. 대부분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보건성(이하 D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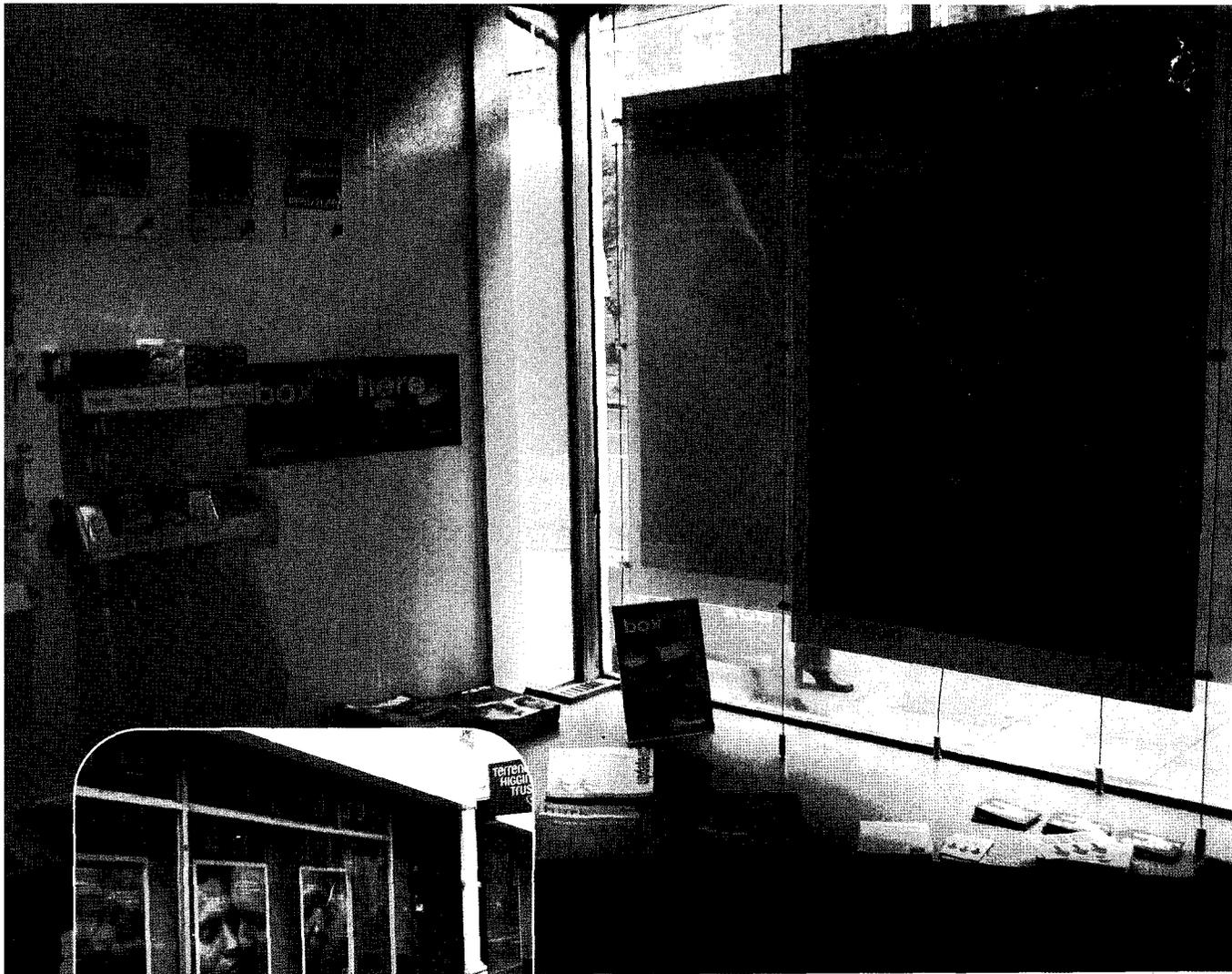
Department of Health)에서 모든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여 서로 어떻게 협조하는지 살펴보고 한국의 성공적 에이즈 사업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MRC Medical Research Council 는 인간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연구 활동을 진행 및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 HIV백신개발을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이런 의학적·임상적 연구뿐만 아니라 감염인의 사회적 문제 즉, 사회학적인 연구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DNA, 세포에서부터 인류학까지 인간건강증진과 관련된 전분야가 이들의 연구 대상이다.

MEDFASH Medical Foundation for AIDS and Sexual Health 는 상근직원이 2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단체이지만 영국 전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주업무로 HIV치료 및 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지만 의사나 보건전문직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지원하여 전체적으로 성공적 AIDS사업이 되도록 보조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영국의 에이즈 관련 각종 리플릿들.





사무실 윈도우 전체가 동성간의 안전한 성관계를 주제로 한 포스터가 인상적인 영국 최대의 민간단체 THT(Terrence Higgins Trust).

HIV서비스 지침서(Recommended Standards for NHS HIV Services)를 발간한 것이다.

DoH(보건성)와 의사협회에서도 이 지침서를 인증하여 영국 전역의 HIV서비스 표준이 되었다. 이 지침서는 의사, 감염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하여 작성하였고 지침을 활용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제도화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HIV감염인에 대한 심리, 상담 등 HIV 전문가

에 대한 서비스를 12단계로 안내하고 있다.

NAT National AIDS Trust 도 직접적인 HIV감염인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지만 정부와 다른 NGO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의 AIDS정책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이다. 알레로 국회 내 보건상임위원회에서 성병진료소의 서비스 질이 기본수준 이하라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결정적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NGO에서 전폭적인 신임을



연고 있다. HIV감염인 및 난민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현재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분화 되어 있는 법률의 통합작업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로비 중이다.

Positively Women에서는 감염인 여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 명의 HIV감염인 여성이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이 단체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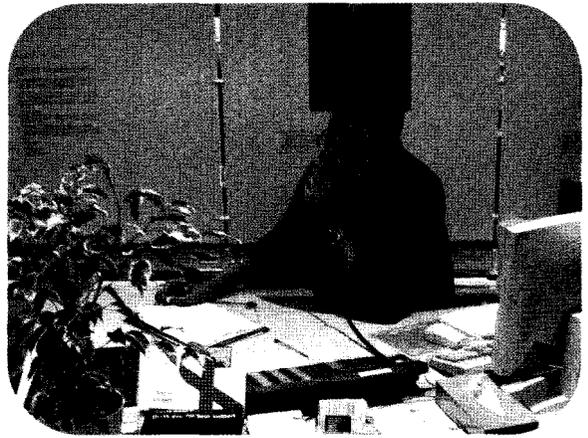
주요사업으로 ① HIV양성판정 여성에게 전화상담, 동료상담,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충격을 최소화한다. ②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HIV치료,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침, 맞사지 등 보조치료를 제공하여 생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③ 감염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비감염 어머니가 감염된 자녀를 돌볼 때 가족단위 지원을 하고 있다. ④ 재취업, 재활을 위한 이력서 작성법, 인터뷰 방법, 자기개발을 위한 전문상담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Speakers(말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감회복 훈련을 실시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한다. 이 모든 사업에 감염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Mildmay Mission Hospital/Family Carecenter는 에이즈 전문치료 병원으로 20년 전에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주민들이 돌을 던지는 등 거센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현재는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원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병원은 영국 유일의 HIV감염인 입원 병원으로 크게 ① HIV감염인을 위한 치매병동 ② 마약/알콜 중독자를 위한 병동 ③ HIV에 감염된 임산부를 위한 병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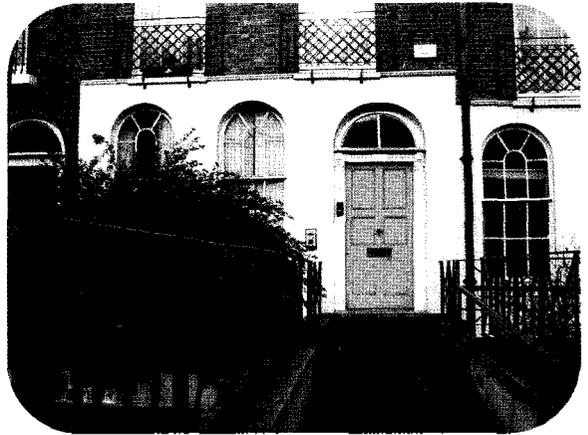
치매병동에서는 논 사용하는 훈련, 미스 타는 훈련 등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며, 임산부를 위한 병동에서는 산모가 아기에게만 신경쓸 수 있도록 다른 자녀들이 놀 수 있는 구내 유치원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감염인 위주의 실질적이고 실용적 사업 실시

위 단체들의 사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국의 HIV사업은 다각화되었고 세분화 되어 있다. 또한 어떤 한 그룹이나 지역에 서의 이슈가 아닌 전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 분주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내와 달리 영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사진은 상담서비스 중인 자원봉사자.



Positively Women 건물 전경.

이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HIV문제가 개인의 것이 아닌 전체 국민의 문제로 인정하고 접근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HIV사업의 중심에 감염인을 염두해 둔 실질적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가 맡은 자리에서 NGO간뿐만 아니라 기관과 정부, 그리고 과학자, 전문가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영국의 HIV사업은 더 빛을 발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와 같은 긴밀한 협조가 있을 때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하루 속히 없어질 것이고, 감염인이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지금보다는 더 성공적인 에이즈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